



## 인터뷰

### NYMEX 윌리엄·버거부회장

# “韓國도 석유



다고 본다]

-先物거래란 무엇인가

『선물거래란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표준상품에 대해 매도자와 매입자가 대금의 지급과 상품의 인도를 현재가 아닌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이행하기로 하고 경매를 하여 가격과 수량만을 결정한다. 다음 그 정해진 장래의 일정시점에 틀림없이 상품인도와 대금지불이 이행될 것을 거래소의 보증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先物이란 장래의 일정시점을 인수도일로 정하고 상품거래소라는 공인된 시장에서 수량과 가격만을 결정해서 매매되는 표준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물계약당시에 정해지는 인수도일을 만기일이라고 하며 만기일까지 포지션(매입했던 先物을 다시 매도함으로써 실물인수의 의무를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을 갖고 갈 경우에는 상품과 대금이 매매 쌍방간에 반드시 교환되어야 한다.

先物이 거래되는 공인된 상설시장이 곧 상품거래소 또는 선물시장이다. 선물시장은 표준화된 상품의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의 위기관리의 효과적 수단인 하나로 先物거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석유선물거래소인 NYMEX(뉴욕상품거래소)의 윌리엄 버거부회장이 지난 11월 3일 방한했다. 버거부회장은 5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국내에 NYMEX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 및 업계관계자들을 만나 상호관심을 논의했다. 11월 5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로버트 R·데이비스 기획개발담당 수석부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방한목적은 무엇인가

『NYMEX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왔다. 특히 NYMEX는 내년 상반기부터 고유황의

사위 원유가 상장되며, 또 1992년 말부터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산 매매시스템(ACCESS)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의 석유소비량은 세계 8위의 수준에 있다. 이는 과거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국제석유가격은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의 석유업계도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헛지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인 선물거래를 적극 활용할 수준이 됐다고 본다. 한국은 지금까지 소요원유의 대부분을 해외현물시장에서 도입해온 실정으로서 선물시장에서의 헛지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이제 점차 유가가 자유화되는 추세이므로 선물거래를 활용할 때가 되었

# 先物시장 적극 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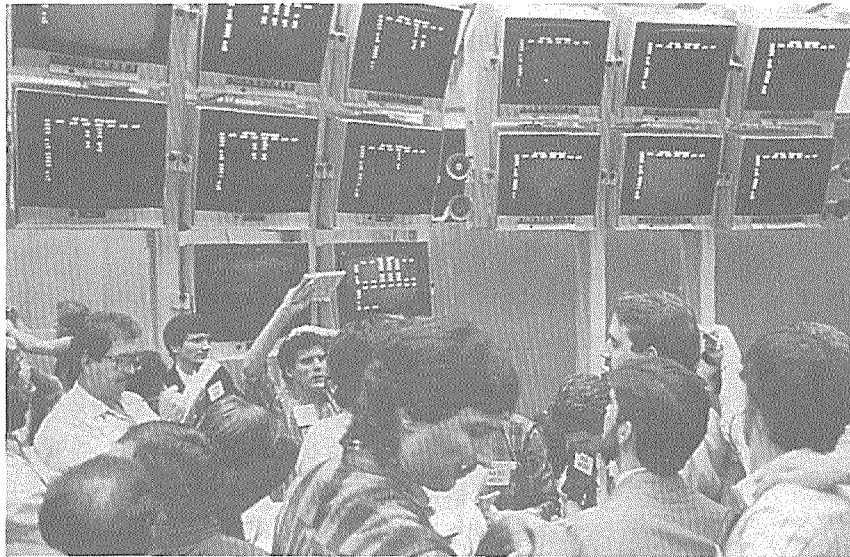
金 乾 治  
 〈석유협회 홍보이사〉

실물 인수도를 미래의 일정시점으로 약정하는 계약, 즉 선물계약이 매매되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한다. 어떤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도되는 상품의 종량, 품질, 규격등이 각거래소별로 표준화되어 있어 가격만이 유일하게 조정될 수 있는 요소이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품거래소 장내에서만 공개호가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 -NYMEX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1872년에 설립된 NYMEX는 세계 3대 先物거래소의 하나로, Chicago Board of Trade (CBOT)와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선물거래소이자 세계 최대의 석유선물 시장이며, 美國에서는 12개 선물거래소중 공산품의 가격책정과 헷징, 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선물시장이다.

그동안 NYMEX는 先物 및 옵션을 개발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8년에 美國의 원유시장이 자율화되자 NYMEX는 원유가격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방유 先物을 상장하여 1978년



한해동안 난방유 선물의 거래건수는 줄잡아 3만4천건에 이르는 성공을 거둬으로써 석유 선물거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후 1981년에 가솔린 선물을 상장한데 이어 1983년에 원유, 1987년에 프로판, 그리고 1990년에는 천연가스 선물을 각각 상장하였다. 1988년 상반기의 경우 NYMEX 전체 거래량의 95%가 원유 및 석유제품 선물이며 특히 원유 선물은 전체 거래량의 67%를 차지함으로써 NYMEX는 원유선물 시장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NYMEX의 석유선물매매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매매량이 3천5백만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1990년의 석유선물거래건수는 하루 평균 14만2천건에 달했는데 특히 원유거래량은 하루 1억4천2백만배럴이었다. 또한 NYMEX는 1986년 원유선물에 관한 옵션거래를 시작으로 1987년 난방유 선물옵션을, 1989년 가솔린선물에 대한 옵션거래를 도입하였는데 하루 평균 매매계약건수는 2만6천건에 이르고 있다. NYMEX는 CBOT보다 24년 늦은 1872년에 Butter and Cheese Exchange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는데 188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현물이 거래되다가 1908년부터 버터와 달걀에 대한 선물거래가 시작되었다.

◇ 뉴욕상품거래소 (NYMEX)에서 원유 생산자 및 구매자들이 선물거래에 참가하고 있다. 원유선물거래는 원유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에서 연유되는 위험을 회피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NYMEX는 회원제의 비영리단체로서 총회, 이사회, 각종위원회 및 사무국과 청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일반상품·석유)으로 구분된다. 1988년 현재 7백50 회원이 8백16개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원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NYMEX 청산소의 근간은 보증기금(Guaranty Fund)으로서 이는 청산소회원이 파산했을 경우 쓸수 있는 기금이다. 거래소는 최근 이 기금을 회원당 6천만달러로 인상하였다]

-선물계약이란 무엇인가

『선물계약이란 특정상품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전달 또는 수령해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선물거래 포지션은 똑같은 양을 상쇄매매하거나 또는 인수도과정을 모두 거침으로써 없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상쇄매매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물거래는 근본적으로 물리적 관리수단으로서 보다는 금융관리수단으로 이용된다』

-옵션계약이란 무엇인가

『옵션계약은 소유주에게 특정한 시기에 스트라이크가격으로 기준선물계약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기준물인 선물은 매입할 권리가 있는 옵션을 Call이라 하며, 매도할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Put이라 부른다.

이 옵션제의 주요장점은 정기보협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옵션은 옵션프리미엄으로 불리는 1회성 가격으로 매매된다. 시장의 변동상황에 따라 옵션계약은 이윤을 목적으로 매도될 수도 있고, 계약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또는 지급한 프리미엄 한도내에서 소유주가 손해를 보아 아무 이득없이 만기가 될 수도 있다』

-NYMEX는 과연 안전한가

『NYMEX의 힘과 유동성은 자체 금융 신뢰도와 청산시스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NYMEX는 이러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일 한도가, 고객 증거금요건, 투기포지션 한도, 시장감독, 모든 NYMEX 회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금융요건등 강력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선물거래소인 NYMEX는 에너지산업계가 오늘날의 불안정한 유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왜 NYMEX의 석유선물거래를 이용하는가

『NYMEX 계약은 표준화되어 있고 시장성이 있으며, 고도로 유동적인 금융기구이다. NYMEX 시장은 거래에 있어 비용절감기회와 위기 관리기회를 제공한다. NYMEX 장내에서는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를 공개 호가방식으로 발표, 계약이 경쟁거래됨으로써 선물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다. 또 NYMEX 선물가는 결정되는 즉시 전세계에 공표된다.

NYMEX 계약은 만기 이전에 쉽게 상쇄매매되므로 소유주가 기준현물을 전달 또는 수령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NYMEX 선물계약이 인수도를 위해 이용되는 적은 거의 없지만 인수도되는 경우는 청산소의 책임하에 현물인수도가 실행된다』

-현재 NYMEX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과 옵션품목은 무엇인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선물은 원유, 난방유, 가솔린, 프로판, 백금, 팔라듐등 6개 품목이며, 옵션품목은 난방유, 원유등 2개 품목이다. 앞으로 천연가스 선물과 가솔린 옵션을 계획하고 있다.

선을 계획하고 있다.

NYMEX는 1983년에 스위트 경유의 선물거래를 도입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에너지 선물거래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NYMEX의 원유계약은 다양한 유종의 원유 인수도를 제공함으로써 광대한 석유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NYMEX의 스위트 경유계약은 세계 원유가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계약인수도 장소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은 미국내 원유현물거래의 중심지이며 ARCO Pipe Line과 TEXACO Pipe Line Inc. 가 운영하는 송유관을 통해 국제원유현물시장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

NYMEX의 원유 선물계약 성공도는 뛰어난 유동성에 의해 잘 입증되고 있다. 1990년까지 7년 연속 NYMEX의 스위트경유 선물거래는 기록적인 계약고를 경신하였다. 1990년에 총 2천4백5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전년대비 1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원유 옵션거래도 총 5백2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업체가 NYMEX를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회원사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다. 직접 회원사가 되려면 가입비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원사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한국은 아직까지 원유공급의 상당량을 현물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선물시장을 활용할 경우 유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선물시장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